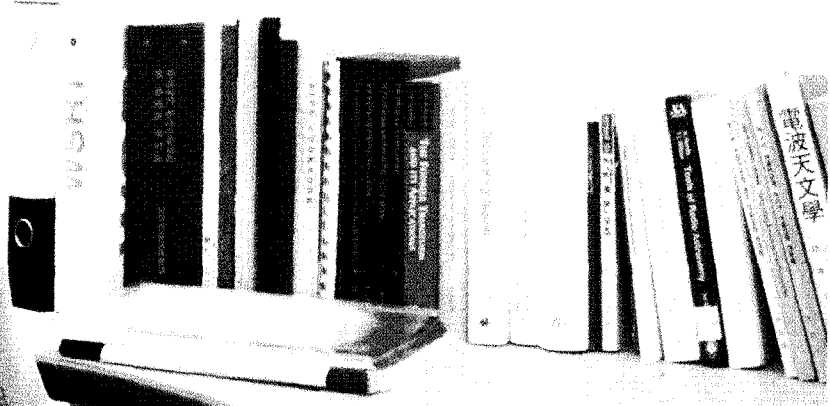




# 전 현암별학교 교장 김지현



다른 과학 분야와는 좀 달리 천문학에서 아마추어 천문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깊고 넓으며 그들의 활약 또한 눈부시다. 혜성이나 소행성 발견은 전통적으로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차지였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천문 교육 분야에서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아마도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교육법으로 무장하고 그들과 동감하며 소통하기 때문이리라.

현암별학교 교장을 지낸 아마추어천문가 김지현 씨를 만났다. 안타깝게도 현암별학교는 작년 여름 이후로 문을 다시 열지 못하고 있었다. 인터뷰는 현암별학교 대신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위치한 KVN-연세 전파천문대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첫 인상은 그날따라 차려입고 온 단아한 한복이 그냥 수식이 필요 없이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일반인을 위한 천문학 책을 여러 권 쓴 작가이기도 하다. “처음 썼던 책이 ‘밤하늘로 가는 길’이었어요. 대학 때 천문 동아리 활동 하던 시절부터 준비했던 책입니다. 아마추어 천문가들한테 필요한 자료가 흔치 않던 시절이었지요. 귀동냥하거나 외국 잡지에서 자료를 구하던 시절이었지요. 정보에 대한 갈증이 심하던 시절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한 4년 걸렸습니다. 현암사 편집장님이 아주 많은 빨간 줄을 그어서 원고를 돌려보내시곤 했지요. 결국 대학 졸업한 후에야 같은 동아리 친구였던 이한주 씨와 함께 책을 내게 되었어요.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디다.”

김지현 선생은 대학 졸업 후 안성천문대에서 한 4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 말미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두 권을 내게 되

었다. 많이 팔렸는지 넌지시 물어 보았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김동훈 씨와 함께 ‘폴코스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과 ‘폴코스 우주 여행’이라는 책을 냈어요. 많이 사랑 받고 많이 팔렸어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아이들을 위한 두 권의 천문학 이야기 책을 새로 냈다. 올 초에 나온 ‘별가족, 태양계 탐험을 떠나다’는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눈으로 본 태양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이다. 짧은 독후감 한 마디. 별을 바라보는 김지현 선생의 따뜻한 마음이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았다.

“작년 말에도 아이들 책을 한권 냈어요. ‘오성이 아빠는 우주인’이라는 책이에요. 아빠가 우주인이 되어서 태양계 구석 구석을 탐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아이와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 아이가 우주로 간 아빠를 보면서 배 아파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 속 작은 천문대로 사랑받던 현암별학교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현암사와는 책을 출판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2000년 무렵에 아현동에 있는 현암사 옥상에 꽃밭을 꾸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옥상에 망원경을 설치하면 별도 보고 꽃도 보고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학생 때 기억을 더듬어서 8인치 반사망원경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마침 지하에 있던 방을 아담한 교실로 꾸미게 되었고 그렇게 별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일 첫 수업이 있었어요.”

변변한 시민천문대 하나 없던 시절이었다. 더구나 도심 한복



판에서 별을 보여주겠다고 현암별학교를 시작했고 교장선생님이 되었다.

“발상의 전환이지요. 도시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희망이나 기쁨,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의 경험은 어느 곳에 가도 더 큰 기쁨으로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도시에서도 밤하늘을 한번 봐줄만 하다는 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도시 밤하늘의 몇 개 안 보이는 별에서도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느낌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요. 더 좋은 하늘을 만나면 더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대성공이었다. 아이들과 부모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서울에서도 견우와 직녀가 보이고 북두칠성도 보이지요. ‘북극성이 제일 밝은 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던 분들도 있었고요. 서울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 볼 수 있다는 것에 감탄을 하기도 했지요. 망원경으로 보는 행성에 매료되기도 하고, 빌딩 옆에 걸린 직녀성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을 나누었던 것이 소중한 것 같아요. 아파트 베란다나 집 옥상이나 마당에 나가서 별을 본다는 말을 들으면서 뿌듯했었지요.”

하지만 현암별학교는 작년 여름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역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넘기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다. 시민천문대가 속속 문을 열고 있는 요즘에 선구자였던 현암별학교의 부재가 새삼 안타까워지고 그 정겨운 작은 수업 모습이 그리워진다.

동해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4인치 반사망원경을 구입하면서 본격적인 아마추어 천문학자 김지현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망원경을 처음 사서 조립해 놓고는 반사경 뒤쪽을 들여다봤어요. 어디에 눈을 대고 봐야하는지도 몰랐지요. 겨우 아이피스 끼워져 있는 곳을 찾아서 봤는데 이번에는 별이 도넛처럼 보이는 거예요. 초점 맞춰야 한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토성을 보고 싶었는데 어디에 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책 뒤지고 신문 잡지 뒤져서 겨우 위치를 알아냈어요. 망원경으로 본 좁쌀만한 토성과 그 고리... 흥분 그 자체였어요. 마치 제가 토성을 발견한 것처럼 느꼈었지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강대에 진학해서 천문동아리 일명 ‘별반’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별과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대학생 천문동아리 연합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의 인연으로 친구들과 함께 책을 씨내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안성천문대와 현암별학교에서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고 별 이야기를 들려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마추어 천문가 고 박승철 씨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서강대에 가서 천문동아리를 제가 직접 만들려고 했지요. 그런데 웬걸, 이미 박승철이라는 초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배웠던 선배이자 동료였습니다. 동아리 관측회에 갔다 오면 평가회를 하는데 박 선배가 지난 밤 별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신랄한 비판과 조언을 하는 겁니다. 두렵기도 하면서 그런 철두철미함이 존경스럽기도 했지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림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뒤져보니까 아직 발표하지 않았던 사진이 많았어요. 2002년 여름에 서강대에서 유고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고 박승철 씨의 소백산 시절 이야기를 끝으로 화제를 돌려서 전 현암별학교 교장 김지현 선생의 근황을 물었다.

“우리말로 된 우리 환경에 맞는 아마추어 천문학을 위한 실용적인 책을 구상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 특강도 다니고요. 참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동안 못했던 관측도 열심히 합니다. 천문인 마을 근처에 우리별천문대가 있어요. 주인장께서 30인치 돛소니언을 설치해 두셨어요. 한밤은 이걸로 은하단 관측을 했어요. 한 시야에 은하 15개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먼 외부은하 관측을 하면서 밤을 꼬박 새웠는데, 동쪽 하늘에서 안개 같은 것이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은하수가 승천하는 것이었어요. 맨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구경 7mm, 배율 1배짜리 망원경인 내 눈으로 우리은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주의 3차원적 공간감을 일깨워주었던 장엄한 광경이었어요.”

그는 앞으로는 아마추어적인 감각의 세계에 더해서 이런 느낌을 강연에서나 책을 통해서 담아내고 싶다고 한다. 자신의 속에 꼭꼭 숨어있는 감성도 다시 일깨우고 싶다고 한다. 김지현 선생은 5년 전 쯤부터 집 가까운 곳 뒷밭에서 농사일을 배우고 있다.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낮에는 지구별에서 훑고 놀고 손으로 만지고, 밤에는 별하고 놀고 눈으로 별을 만지면서 말이지요. 그런 학교를 열고 싶어요. 지구에서 가장 어두운 곳들로 관측 여행을 다니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하나씩 해나가야지요.”

아름다운 별 꿈을 꾸며 지구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김지현 선생은 이미 오성이 아빠처럼 우주여행을 떠난 것 같았다.